

기초 교육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역할

김태환 · 이희원*

최근 국내 대학 학부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의 실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고력, 정보 처리 능력, 학습 동기와 태도 등에 있어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외 지대는 아니다.

기초 교육은 전공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학력 수월성을 갖춘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보강된 기초 교육이 제공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기초 교육 강화의 중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초교육원이다.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 과정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교과목들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교수학습개발센터 역시 기초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혹은 하여야 하는 기관이다. 이 글에

서는 현재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이 기초 교육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점검하고 그러한 사업을 통해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활동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 지원 활동이 있다. 교수 워크숍, 강의법 과정, 강의 촬영 및 분석, 우수 강의 CD 제작, 웹클래스 운영, 핵심 교양 조교 워크숍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교육 지원 사업의 목표는 교수자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의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물론 교양 강의에 특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역시 강의 제공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육 지원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개별 학과와 협력하여 각종 교양 강의 개선 워크숍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의법, 강의 실태 및 강의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학습지원부 선임연구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양한 학습 지원 활동을 통해 직접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워크숍, 학생연구 참여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워크숍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학습 기술(study skill) 교육, 발표와 토론 기술, 사고력 계발, 독서법, 노트 작성법, 시간 관리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셋째, 2003년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내에 글쓰기교실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쓰기 교육 역시 기초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리포트 상담,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 등의 프로그램이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글쓰기 교재 개발 작업 역시 진행 중이다. 앞으로 KT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글쓰기 교육 과정도 개설될 것이다. 글쓰기 능력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일부분인 동시에,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라면 필히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글쓰기 교육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활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교과 과정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이

라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리포트 상담이 그런 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글쓰기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발적인 의지가 남달리 강하고 적극적인 학생들만이 상담실을 이용한다. 반면 장점은 학점이나 성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과목의 수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데 반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제도적인 장벽도 낮아서, 이를테면 대학원 생 역시 필요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학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물론 논문 작성법이나 대학원생 워크숍처럼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이런 점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비단 학부 학생이나 신입생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이상의 활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강의나 학습, 글쓰기 기술의 전수가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교육과 학습 활동이 목표에 걸맞은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획되고 실시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더 글을 잘 쓸 수 있는 법, 더 공부를

잘하는 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태도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가, 진정한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가를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흔히 목표에 합당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목표를 포기하기보다는 정도가 아닌 방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려고 시도

하게 된다. 리포트를 표절하고 다른 학생의 노트를 복사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돋는 것, 그것이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생각하는 기초 교육이다. 5